

남원시, 안전한 여름나기

오늘부터 자연재난·농업재해·식중독·감염병 예방 등 종합 대책 추진

남원시(이환주 시장)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하절기 종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폭염이 발생하고 대기불안으로 국지성 폭우 등 지역적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15일부터 ▲자연재난대책 ▲농업재해대책 ▲재난 취약계층 보호강화 ▲식중독, 감염병 예방 등 건강 환경조성 ▲피서지 불편요소 사전 대응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사항을 수립, 하절기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연재난 대책으로 기상특보 등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장비 및 인력 동원, 비상연락망 정비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관리를 강화하여 인명피해 ZERO와

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

농업재해 대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별, 기상특보 단계별 농작물 관리요령 등을 사전 교육하고, 특보 발령시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대응 요령 SNS 문자 전송은 물론,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다.

임예시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시설 보강과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원예업과 축산업 등에 대한 보호도 놓치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하절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한다. 재난 취약 계층의 시민을 보호를 위해, 우선 찾아가는 복지 간담회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사전 정비, 무더위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보호를 굳건히 실시

한다.

또한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집중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환경과에서는 쓰레기 대책반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휴양지 교통대책 수립, 민박시설 운영 및 안전 점검, 피서지 불안전정 대책 마련 등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모든 안전 위협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생활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 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본격적인 농번기 일손 돕기 '총력'

7월 31일까지 전 직원·유관기관 참여 독거노인·장애농가 등 우선 지원

순창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대대적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여 동안 군산하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철 농촌일손 돕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종합행정 담당별 실과와 읍면이 지원 날짜와 대상 농가를 선정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지원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농가 등 일손 형편이 어려운 농가 과 수확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대상 농작업으로는 본격적 수확 시기가 도래한 매실, 복분자, 블루베리 등 특화작목 수확

과 비닐멀칭, 고추 지주목 설치 등 밭 농작업이다. 또 비닐 하우스철거 및 농경지 주변 영농폐기물수거도 같이 실시해 클린순창 운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친환경농업과와 읍면 사무소에 일손 돕기 창구를 운영해 실제 일손이 필요한 농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일손 돕기 창구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일손 돕기 이외에도 시민종교단체 군부대, 교육기관 등에 연계해 지역주민 전체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와도 연계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해서 지난 14일에는 순창군의

회와, 지역경제과, 체육진흥사업소, 산림축산과, 건강장수사업소, 유등면 직원 70여명이 매실, 복분자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재경순창군 부녀회 40여명도 동계면 매실수확을 돕기 위해 순창을 방문해 부족한 농가의 일손 돕기에 나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실인환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농촌일손 돕기 동참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농작업에 어려움이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농촌일손 돕기에서 농가가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작업 도구와 중식 등은 군에서 준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에서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 실무협 개최

남원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동부권 6개 시장·군수 협의회 실무협 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동부권 6개 시·군 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그 동안, 협의회는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 분야 확대 등 동부권 주요현안 사항이 도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러한 결과로, 요구사항 등이 도정에 반영되어 전라북도 주관 동부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하반기에 추진 될 예정이다.

이에 동부권 발전계획 추진 방향 등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가 향후 추진해야 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실무협의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 지사면, 자동파종기 설명·공과중 연시회

임실군은 지사면 연천리 소재 농가 포장에서 공 과중 파종기 자동파종기 사용기술 설명 및 공과중 연시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번 연시회는 지사면 공과중만 이삼근 대표를 중심으로 40여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두부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보급된 휴립복도 4조식 공과중기를 활용해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중인 논농 단지화 및 기계화,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기존 복잡한 작업방식을 벗어나 휴립복도, 멀칭, 파종을 동시에 진행하고, 시간당 0.4ha(1,200)면적을 휴립복도 및 파종 할 수 있어 노동력 80% 절감 효과와 안정생산기반 마련 등으로 논농 재배단지 증가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 지사면 논농재배단지

10ha, 관촌 공과중단지 14ha 등 권역별 공 과중단지 조성을 통해 연차별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오는 2018년도 100ha를 목표로 공 과중면적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논 대체작목을 통한 쌀값안정과 농가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공 과중과 논기계 임대사업장을 연계한 공과중 수확기 기계화시스템을 운영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 과중단지 활성화를 통해 벼주, 청국장, 간장 등 발효장류 6차 가공산업 육성과 가공·유통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 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등의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공 과중 배는 FTA등 국내외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해 일관 기계작업을 도입해 고령화시대 실질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10대작물 비법 전수로 귀농인 성공 정착 지원

순창군이 군의 10대작물 성공비법 전수를 통해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군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귀농인 20명을 대상으로 순창 10대작물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 28일까지 진행되는 10대 작목 2회차 교육으로 2박 3일간 진행된다.

순창의 10대 작물은 복분자, 블루베리, 꾸지뽕, 딸기, 멜론, 매실, 두릅, 오디, 오미자, 삼추다. 지역의 대표적 소득작물로 농민들의 주 소득창출원이 되고 있다.

24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현장실습 교육은 오디에 대해 재배부터 가공까지 알아볼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오디에 대해 배우고 생산, 가공, 유통농가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재배실습과 오디를 활

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체험을 진행해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소득창출에 대해서도 배운다. 특히 군은 농촌생활백서 강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소개, 농특산물 직판장 견학 등을 통해 지역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이호준 귀농귀촌 계장은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농촌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꾸준히 귀농·귀촌인들이 늘고 있다"며 "귀농인들의 소득작물 정착을 위해 10대작물 현장교육 이외에도 생태난방교육, 귀농인 멘토링제, 단기 장기 귀농교육 등을 진행해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교육사업 이외에도 귀농인들의 주거 문제를 위한 임시거주지 조성, 소득사업비 지원, 이사비 집수리비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쌍치파출소, 건설자재·유류 도난 예방 홍보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쌍치파출소(소장 서정선)는 관내 도로공사 등 건설현장에 방범하여 건축자재 및 유류 도난 예방 홍보 활동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상태 도난이 우려되는 건설공구 및 자재 등의 절도 예방

요령과 적절한 장소에 CCTV 설치, 블랙박스 설치차량 주요 목 배치 등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토록 계도하고 있다.

또한 주말 등 연휴기간에 광파기 등 고가장비는 파출소에 맡겨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자동차세 부과 고지

순창군이 201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668건, 9억7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적기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대비 146건, 세액은 3천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감소사유는 1월중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 2,986건, 7억4천4백만원을 부과 납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서부터 이륜차까지 7종으로 구분 과세되며 배기량과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차등 과세된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순창군 지방세 세입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주행세 포함) 차지하고 있다. 미리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 이후 신규 등록 및 소유권이전 차량은 다음달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는 6월 30일까지며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미납으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라 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블로그 마케팅 교육 실시

임실군은 오는 16일까지 3일간 예비여성창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블로그 마케팅교육'을 실시한다.

군청 주민정보화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이태훈 말캉커뮤니케이션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블로그, 페이스북 제작과 마케팅 트렌드 조사, 사진촬영,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는 "평소 관심을 갖던 블로그 마케팅을 지역에서 전문가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어 창업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으로 군 단위 지역 예비 여성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해 여성인적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공유재산 일제조사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해 고창군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군 소유의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해 실소유 및 읍면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뿐 아니라 일반재산, 특히 누락된 공유재산과 무단 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고 14일 전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취소, 원상복구, 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고, 누락된 재산은 새로이 대부해 공유재산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청회

임실군은 임실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주민공청회'를 14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는 심민 군수, 추진위원회 및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본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에 교육, 의료, 문화, 복지, 경제 등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을 연결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농림부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해 지역개발분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에 임실읍과 일반지구에 청용면을 선정하고 오는 2018년까지 80억원과 60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성호도서관, '정리의 달인,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문화강좌 운영

군립도서관에서 28일부터 7월 5일, 12일,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무료로

고창군(군수 박우정) 성호도서관이 야간문화프로그램 '정리의 달인,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강좌를 마련했다.

군은 최근 여러 매체에서 각광받고 있는 수납 정리 강좌를 지역 내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야간에 개설해 수강생을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성호도서관으로 전화(560-8053)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의 장소는 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이며 오는 28일부터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수납 전문가 류현주 강사가 △정리수납의 개념 △주방 정리수납 △방장고와 김치냉장고 수납 △침구와 옷장 정리 수납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리법을 재미있게 강의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요즘 여러 매체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정리수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낮 시간에 수강이 어려운 청소년과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야간강좌를 개설했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